

#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

## **동결된 중앙은행 기금 150만불 어디로 갔나?**

### **재정부장 채홍인 장로 “나는 아는 바 없다”발췌**

강준민목사가 떠날 때 중앙은행에 13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을 강목사측에서 못주겠다면서 동결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에 법원에 의해서 이 자금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풀렸습니다.

그 달 제직회에서 “이 자금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재정부장이었던 채홍인장로는 “나는 이 자금에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이하 모든 상황은 그대로 DVD에 담겨져 보관되었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

몇 10불 아니 1만달러를 모르겠다고 했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교회의 재정 책임자인 재정부장이 100만달러가 넘는 거금에 대해서 “나는 그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니 그럼 그돈에 관해서 과연 누가 알고 있으며 그 행방은 어디란 말입니까.

## **오후학교 10만불 중 8만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 **채홍인 장로, 한달 뒤인 “다음 제직회서 밝히겠다”.**

우리 교회 소속인 오후학교에서 결산을 하고 남은 돈 10만 달러를 교회에 납부했습니다. 제직회 보고서에 2만 달러만 입금한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것도 기타수입으로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돈의 행방을 물었더니 당시 재정국장이었던 장주영국장이 옆 사람에게 잘 들릴 수 있을 정도의 또렷한 말씨로 “8만달러는 채홍인 장로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채 장로가 당황해 하더니 벌떡 일어나 “이 자금에 관해서는 다음 제직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답변하고 내려왔습니다. 많지도 않은 8만달러의 내역을 그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1달 뒤인 다음 제직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왜 8만달러를 제직회 보고서에서 누락시켰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제직회에 보고한 재정부보고서 참고)

## **변호사 비용 어디서 만들어 지급했느냐에 무응답**

재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래집사는 지급한 변호사비가 얼마냐는 질문에 “11만 달러”라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사비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인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돈을 지불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직회 보고서에 예비비는 없고 기타

지급에 6만 달러라고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만 달러는 어디에서 만들어 지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강준민 목사와 싸울 때 장로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면 최 우선적으로 재정만은 투명하게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강목사가 “5만 달러를 만들어라”라고 지시하면 재정부는 그 자리에서 현금 가운데서 현금으로 그 돈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물론 10만달러, 20만 달러 등 부르는대로 현금에서 그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일반 회사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강 목사는 지난 몇년동안에 수 백만 달러를 빼돌렸을 것이라는 것이 당회 장로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추측입니다.

### **장주영목사는 강목사밑에서 현금 빼돌린 재정책임자 수 백만불 빼돌린 하수인, 알면서도 행정목사로 임명**

이같은 현금 빼돌리기의 총 책임자가 바로 장주영 재정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재정국장으로 거의 2년동안 강목사 밑에서 이같은 하수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교인들은 장국장을 강목사의 재정비리를 마지막 정리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고 묵인했습니다. 실제로 장국장은 강목사를 배신하고 일부 부정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장로 등 일부 장로들이 장주영 재정국장을 부목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장주영 국장을 행정목사로 임명했습니다.

강목사의 재정비리의 하수인이었던 장주영을 어떻게 행정목사로 임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동양선교교회의 형제 자매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제직회에서 이런문제에 관해 질문을 했더니 제직회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면서 제직회자체를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들이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어서 할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왜곡된 내용의 편지를 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할 때입니다.

### **장로들보다 나이 많고 사회경험 풍부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 다양한 다수의 세력을 몇명의 장로들이 “일부 집사들”이라고 폄하**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집사 몇명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권사님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집사들이라고 폄하되고 있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60세가 넘고 70세 80세가 넘는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장로들보다 나이와 사회경험 등에서 선배요 어른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장로들은 욕설을 포함한 막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 **일부 장로들 더 욕설 퍼붓고 싸움질에 심지어 발길질까지 노수정 장로, 이세훈 장로, 박환 장로는 쌍 욕설의 대가**

그 들은 집사들이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먼저 그리고 더 심하게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노수정 장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같은 장로에게 “이새끼 저새끼”하면서 우리 모두가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해댄일이 있었으며 나이많은 집사님에게 쌍욕지끼리를 해댄 것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세훈 장로의 경우 같은 장로의 부인 권사에게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듣기 거북한 쌍욕을 했던 것입니다. 박환 장로는 차원을 높여 “이 새끼들아 ………” 이렇게 욕할려고 했지 라면서 고차원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 장로는 지난 3월 26일 주보를 놓고 시큐리티 가드를 동원, 폭력을 휘둘렀을 때 80세의 이성주 장로가 땅에 떨어진 주보를 줏으려는 순간 발길로 걷어차 뼈가 부러져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나이가 많고 장로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장로님들에게 욕을 했다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품위를 지켜 집사들에게 또는 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쌍욕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고고하고 집사들만 쌍욕을 했다는 날조된 허위사실을 더 이상 유포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큐리티 가드 40여명 동원, 교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2주동안 동원한 가드 경비만 4만 5천 840달러 달해**

지난 3월 28일 주일에는 박제임스 장로를 주축으로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흥인 장로 등 이들 장로들이 시큐리티 가드를 불러 교회를 소란스럽게하고 이때문에 40년 우리교회사상 처음으로 1부와 2부 예배가 공권력에 의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날 이들 몇 안되는 장로들은 새벽 5시경부터 40여명의 시큐리티 가드를 교회 파킹장에 집결 시킨 뒤 1, 2, 3, 4부에 이어 5부 예배시간의 소향의 공연이 계속되는 동안 교회 곳곳에 배치, 교인들의 접근을 막았으며 공동총회가 열리려는 순간에는 강대상 주변을 둘러 쌓고 일부는 신성한 강단에까지 올라가 총회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교인들은 결국 파킹장으로 나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른 뒤 공동총회를 열었으나 다시 공권력에의해 중단돼 할 수 없이 200여명의 교인들이 월드미션 신학교에 모여 공동총회를 열었습니다.

### **가드 세우고 행정목사실, 교회사무실 열쇄 바꾸고 직원 내쫓고 출입 통제속 24시간 가드들이 사무실 경비**

그런데 그 사이에 이들 몇 안되는 장로들은 행정목사실과 교회 사무실 열쇠를 바꾸고 직원들을 내 쫓은 다음, 24시간 시큐리티 가드를 배치, 교회사무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ID를 확인 하는 등 신성한 교회가 이교도들에 의해 짓밟히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벌인바 있습니다.

주일 하루동안 사용한 시큐리티 가드의 사용 비용은 너무 엄청납니다.

보통 1인당 1시간에 체격과 기술, 무장 등에따라 등급이 매겨져 40달러, 50달러, 60달러 등인데 40달러로 치고 40명이라면 시간당 **1,600달러**이고 7시까지 있었으니까 14시간이므로 그 비용은 무려 **2만 2천 400달러**나 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1명의 가드를 24시간동안 총무부에 배치해왔는데 시간당 40달러씩 24시간이면 960달러이고 주 7일이면 6천 7백20달러, 결국 2주 동안만 **1만 3천 440달러**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지출은 몇주동안 계속됐었습니다. 그들은 또 4월 4일 주일에도 15명의 비싼 가드를 동원, 적어도 **1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입니다.

결국 사건이 일어난 2주동안에만 이 계산대로라면 시큐리티 가드를 위해 지불한 돈은 **4만 5천 840달러**에 달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바로 여러분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정성을 다해 바친 헌금에서 지출됐습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일부 장로들은 입만 열면 헌금이 모자란다면서 교인들을 탓합니다. 실제로 매 주일 우리교회의 헌금은 겨우 2만 5천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장로들은 2 주동안의 주일헌금을 몽땅 시큐리티 가드를 부르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2 주동안 여러분들이 정성드려 하나님에게 바친 그 헌금이 시큐리티 손아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 **24시간 배치하고 일이 생길때마다 시큐리티 가드 동원**

### **우리 교회 전체 헌금 1개월 분이 시큐리티회사로 들어가**

시큐리티 가드 대금은 이뿐이 아닙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이들 장로들은 지난 3월 3일 당회개최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주보를 빼앗으려는 술수를 꾸미기 위해 지난 3월 26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5-6명의 시큐리티 가드를 동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거의 한달동안의 신성한 헌금을 몽땅 시큐리티 가드 회사에 주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려면 차리리 장로들이 철야하면서 지킬 일이지 시큐리티 가드가 원말이냐고 비난하자 몇주간 후에 이를 중단했습니다. 비난때문만은 아닙니다. 헌금이 줄어들면서 그들에게 줄 돈이 없기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이 소수여서 힘이 없자 시큐리티 가드를 동원해 폭력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이 10여명만 돼도 이렇게 가드를 동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지지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돈을 자기들의 위치 확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 형제 자매여러분!

동양선교교회는 박제임을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흥인 등 소수 장로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 가도록 기도합니다.

### 동양선교교회 수습대책위원회

<참고 : 재정부가 2월 12일 제직회에 제출한 문제의 자료>

재정부												
As of January 31, 2010												
1) 월별 수입 및 지출 실적 분석표												
월	예산	수입		예산대실적		작년대비		지출		작년대비		차기이월
		현금실적	잔액	비율	실적	비율	금년도	작년도	차액	비율		
12월 09년	335,692	171,787	-163,905	51.2%	819,941	21.0%	291,766	695,713	-403,947	41.9%	-119,973	
01월 10년	395,815	175,014	-220,801	44.2%	736,508	23.8%	204,134	669,960	-465,826	30.5%	-149,098	
TOTAL	731,307	346,801	-384,506	1	1,556,449	22.3%	495,900	1,365,673	-869,773	1	-149,098	
2) 건축 현금 12-1월												
전기 이월	수입	지출	보유액	전기 이월	수입	지출	보유액					
108,142	이자 건축현금 81	Loan 지불금 10,849	97,373	159,223	이자 258	Loan 지불금 24,135	135,348					
	합계 81	합계 10,849		합계 258	합계 24,135							
3) 비전 현금 12-1월												
전기 이월	수입	지출	보유액	전기 이월	수입	지출	보유액					
42,083	이자 복코너 - 오케스트라 - 기타 수입 20,000	복코너적구입 - 오케스트라 - 기타 지출 60,000	2,101	123,600	LIBRARY FUND TCD TCD 이자 376 이자 376	신작도서구입 Service Charge 이자 Transfer 376	123,600					
	합계 20,018	합계 60,000		합계 376	합계 376		123,600					
4) 특별 지정 현금 12-1월												
5) 도서관 현금 12-1월												

1번으로 표시된 2만달러가 바로 오후 학교에서 교회에 납부한 10만달러의 일부이다. 나머지 8만달러는 3번의 현금실적 어디에도 없다. 들어온 돈은 10만 달러인데 기록은 2만달러로만 돼있는 것이다.

2번은 재정부가 주장하는 변호사비의 지출 내용이다. 그러나 이승래집사는 11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답변했고 기록된 6만달러 이외의 5만달러의 비용에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4번의 지출란에도 그 돈을 지출한 흔적이 없다. 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비라고 쓰지 못했으며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지불했단 말인가? 답변은 왜 못했는가? 우리는 이것이 비리이며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배후에 장주영 재정국장(최근에 행정목사로 임명됐음)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부의 채흥인 장로나 이승래 집사는 잘 모를 수도 있으며 답변

을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설명이다.

##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을 하면 그 돈이 몽땅 시큐리티 가드 사용비용으로 지출되고, 그나마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목사밑에서 수 백만달러에 이르는 우리들의 헌금을 빼돌린 하수인인 장주영 재정국장이 하는 설교를 매 주일마다 들어야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 가기도 싫다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고 싸움만 있는 교회는 싫다는 교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안, 우리가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비상대책 특별기도회를 갖고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 월드미션 신학교 대 예배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와서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수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모임입니다.

이 특별기도회에서는 우리교회에서도 시무하셨던 김성웅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능력있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매주일 이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흥회에 온것 같으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기도회를 바로 우리들의 모임인, 초대교회의 믿음을 그대로 실현하는 모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직접찾아 오시고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213-703-5700이나213-820-855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선교교회 비상대책 특별기도회 안내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

장소 :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6층 대예배실.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